

천변풍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년 수능]

1)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2)“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3)“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뭣 하러 타니?”

4)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5)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6)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7)

[A]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8)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 어린이의 마음은 걸잡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9)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10)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11)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B] 12)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13)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14)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15)‘암만 좋은 구경이라두, **밤낮 본다면 풀리고 만다**……’

16)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냐. 17)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18)‘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19)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20)“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21)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

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22)“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23)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허끝을 놀리어,

24)“시구라, 시구라.”

25)하고, 뻘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싱겁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26)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27)“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28)“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29)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30)㉣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편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①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② 깍정이 : 거지.

[12%]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점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1%]

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당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줄기를 이룬다.

- ① ‘창수’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 봅시다.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창수’가 혼돈에서 벗어나 ()

‘창수가’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